



2021. 3. 11.(목)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시민의숲 1963추진단	단 장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	팀 장	송 중 범 (☎ 063-281-2712)
	담 당 자	정 훈 (☎ 063-281-2718)
총 매 수	1매	
사 진	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‘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’ 자광에 전달

- 시, 11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민간제안자에 전달

- 전주시는 ‘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’(위원장 이양재)가 제출한 권고문을 11일 민간제안자인 자광에 전달했다.
- 이에 앞서 시는 시정조정위원회(위원장 최명규 부시장)를 열어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약 1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권고문을 수용했다.
- 시는 향후 민간제안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.
- 전주시 관계자는 “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공론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주신 전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말했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시민의숲1963추진단 (063-281-2712, 2713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시는 사전협상 결과 등을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.